

한반도 내 THAAD 배치와 미국의 전략

모 준 영(고려대학교)
(mojuneyoung@gamil.com)



국문요약

고도미사일방어(THAAD)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방어 수단 일체를 가리킨다. 최근 정부는 한반도 내 THAAD 배치를 발표했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절한 수단으로 강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THAAD와 같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가 한국에 도입될 때에는 주한미군과 한국을 위협하는 명백한 공격 요인이 새로이 발생했거나 기존의 방어체계로는 미비한 위협 증가로 인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생겼음을 의미할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북한의 미사일 기술 증강으로 인한 위협이 증가되어 감에도 미국의 MD에는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미사일방어 체계(KMAD)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한반도 내 THAAD 배치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주요 안보기관의 문건들을 통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에 견주어 미국의 한반도 내 THAAD 배치의 전략과 목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논문은 2장에서 미 국방부가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발표한 〈국방전략지침〉(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과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그리고 백악관이 2015년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내용을 살펴보고, 미국의 국제

적 안보 관심사가 아태지역으로 전환되었고, 아태지역에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그리고 미국의 주도적 지위 약화임을 파악했다. 그리고 3, 4, 5장에서는 한반도 내 THAAD 배치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즉 미국은 한반도 내 THAAD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억지하고,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며, 역내 동맹국 및 우호국들에 대한 안보 보장 공약을 재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미국의 한반도 내 THAAD 배치가 미국의 역내 영향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된 것임을 밝힌다.

주제어 : 사드(THAAD), 북한 미사일 위협, 반점근/지역거부(A2/AD), 공해전 전투 개념(AirSea Battle), 재조정 전략(rebalancing strategy)

I. 서론

탄도미사일은 고정된 사일로뿐만 아니라 이동 가능한 트럭, 기차, 잠수함, 전함 등에서 투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방어자가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탐지(detection), 식별(discrimination), 발사통제(fire control), 파괴(killing) 등 4가지 기능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표로 구축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역시 지상, 해상, 공중 그리고 우주에 배치된 감시 및 조기경보 체계, 요격 체계, 전역관리/지휘통제 체계 등을 통합 운용하고 있으며 추진 및 도약(boost), 중간(midcourse), 종말(terminal) 등의 단계를 나누어 상·하층에서 요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이하 THAAD) 역시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떨어지는 단계(종말 단계)에서(대체로 고도 40-150km 상공에서) 요격하는 방어 수단 일체를 가리킨다(Kwon 2014).

한국에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의 일부인 THAAD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처음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 체계도입이 필요한 안보상황의 변화일 것이다. 주한미군과 한국에 위협이 되는 명백한 공격 요인이 새로 발생했거나 기존의 방어체계로는 미비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경우라면 새로운 방어체계가 논의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가령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게 미국의 MD 체계 참여를 요청했던 1993년에는 북한이

일본 내의 미군 기지를 비롯한 일본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1,300km의 노동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었다. 물론 당시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이 미국과 달라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도 상당기간 한국은 미국의 MD 체계의 도입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리고 2006년에 한국은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지 않지만 독자적인 미사일방어 체계(KAMD)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그 이후 초보적인 단계나마 부분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가령 2008년부터 독일에서 패트리엇미사일(PAC-2)을 구매해 전력화를 진행했고, 2009년 9월에는 탄도유도탄을 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레이더를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하기도 했다.

최근 한반도 내 THAAD 배치와 관련해 국내 여론이 우왕좌왕하며 혼란스러운 데에는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외부의 위협요인에 대한 견해차를 제기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가 북한의 위협 요인 증가를 이유로 미국의 THAAD 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는데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이다. 일례로 THAAD 배치를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렇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는 것을 보면, 그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한반도 내 THAAD 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입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입장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한반도 내 THAAD 배치 과정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와 함께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THAAD 배치의 전략과 목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논문은 2장에서 미국의 주요 문건들을 토대로 국가안보전략의 변화를 다루고, 3, 4, 5장에서는 그와 같은 전략 변화의 근거들로 북한의 위협, 중국의 부상, 미국 내 국방예산 삭감 등을 제시할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6장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THAAD 배치가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변화

냉전시기에 미국은 소련보다 안보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1950년대부터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에 나섰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해 왔다. 가령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나이키 제우스(Nike Zeus) 프로그램 운용을 시작으로 미국의 미사일체제는 1972년 소련과 수도권을 포함 2개소에 방어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의 ABM 조약을 체결하며 잠정 중단되기까지

다양한 명칭의 프로그램으로 이어져 왔다(Hildreth 2007, 3).¹⁾ 미사일 방어체계가 다시 정책의제로 전면에 재등장한 것은 1983년 레이건 행정부가 소위 “별들의 전쟁”(Star Wars)으로 알려진 전략방어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을 발표하면서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의 목적은 적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에서 본토 밖의 동맹국과 주둔 미군 보호로 바뀌었다.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전역미사일방어 체계에의 참여를 요청했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다(Hildreth, 3-5). 미사일방어 체계는 이제 미 본토에 대한 미사일방어(Ground-based Midcourse Defense, 이하 GMD)²⁾ 체계 위주로 구축하되, 전역미사일방어(Theater Missile Defense, 이하 TMD) 체계를 보완적으로 운용하는 식으로 구성되었다(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4, 18). 이후 9.11 테러를 겪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세계적 확산과 불량국가(rogue states)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MD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Hildreth, 6-7). 이 시기에 GMD와 TMD를 통합해서 MD라고 명명했고, 미사일 방어기구를 미사일 방어국(MDA, Missile Defense Agency)으로 확대·개편했으며, 실현가능한 기술부터 실전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말 ‘아시아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국가안보전략의 초점을 아시아로 변경했음을 천명했다. 소위 ‘재균형 정책(Rebalancing Strategy)’이 그것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미국의 주요 국가안보 문건을 통해 그와 같은 전략 변화의 근거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012년에 미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전략지침〉(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은 미국이 지향하게 될 국방정책의 큰 줄기를 잘 보여 줬다. 이 문건은 “향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비롯해 광범위해지는 역내의 도전과 기회들에 초점을 맞출”(US DoD 2012, i) 것이라면서 미국의 국방정책 핵심이 ‘아시아’로 이동했음을 제시했다. 문건은 2011년의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에 따라 국방예산이 우선적인 예산 삭감대상이 됨을 보여주고, 국가적 재정 감축이라는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 국방전략을 새롭게 정의하지만, 그럼에도 아시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운영을 유지할 것임을 제시한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 국방 전력을 재조정할 것임을 밝혔다. 서문을 보면, 그 재조정이란 결국 유연하고 준비되어 있는 보다

1) 존슨 행정부는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부터 도시들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센티널(Sentinel) 미사일방어 체계를, 닉슨 행정부는 대도시가 아닌 핵 미사일 기지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세이프가드(Safeguard)를 구축하고자 했었다.

2) 2003년에 NMD의 명칭이 GMD로 변경되었음. GMD의 목적은 미국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ICBM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하여 미국 전역을 방어하는 것임.

작은 형태의 군사력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임무 10가지를 제시했는데, 특히 반접근/지역거부(A2/AD)에 대한 전력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지침은 이에 대해 합참에서 개발한 “합동 작전 접근 합동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잠수함 능력 강화,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 개발, 미사일 방어 개선, 핵심 우주기반 능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US DoD 2012, 4-6).

다음으로 2014년 3월 발간된 〈4년 주기 국방 검토보고서〉(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는 재균형(rebalancing) 정책에 의거 아태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US DoD 2014, i). 상당 부분이 이전의 QDR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가, 앞에서 다뤘던 2012년에 발간한 〈국방전략지침〉을 기초해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발표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고서는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미국이 지켜야 할 핵심이익을 크게 네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 본토, 미국인, 동맹국, 우호국의 안전 확보, 미국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기회와 번영을 약속하는 개방적 국제경제체제 유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 확산, 미국 지도력 하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들 국가이익을 전략과 결부시켜 크게 세 가지 기둥을 강조했다. 즉, 미국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고 물리쳐 본토를 보호하는 것(protect the homeland)과 지역 안정을 유지하고, 적을 억지하며, 동맹국과 우호국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안보를 구축하는 것(build security globally), 그리고 침략을 물리치고 테러네트워크를 분쇄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힘을 투사하고 결정적으로 승리하는 것(project power and win decisively) 등을 제시했다(US DoD 2014, v, 12, 13-22).

특히 조기 경보와 추적을 제공할 2차 레이더를 일본에 배치할 것과 추가적인 방공수단(interceptors)이 필요하다면서 추가의 미사일방어 체계를 위한 최적지를 검토해야 할 것임을 지적한다(US DoD 2014, x). 그리고 새로운 우호 관계를 형성하고 기존의 동맹국 및 우호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을 도모할 것임을 제시한다(US DoD 2014, 16, 32). 실제 미국은 한·미, 미·일, 미·호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로의 자유를 확보하고 중국의 해양영토 확장 야심에 대응하는 인도를 포함한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향후 추구하게 될 통합군의 전진배치 운영을 위해서도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 호주에 미군을 주둔시킬 수 있는 기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는 미국 연안전투함의 순환배치에 합의했고, 과거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었던 필리핀과도 미군의 순환배치에 대해 합의했다. 게다가 미국은 해군력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는 예산 감축되는 것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용가능하도록

할 것임을 강조했다(US DoD 2014, xi).

세 번째로 2015년 발간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는 미국의 주도적 지위(리더십)와 이익에 관해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2010년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익을 안보(security), 번영(prosperity), 가치(value),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등으로 제시했다(The White House 2015, 1). 특히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과의 동맹을 강화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US DoD 2014, 7, 24). 아울러 보고서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향후 5년간 미국 외 지역의 경제성장 중 절반이 아시아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동 지역에서 동맹국들 및 동반자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한·미·일 3각 공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3개의 주요 문건을 보면 미국의 안보전략의 근거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능력 증강, 중국의 급부상 및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그리고 동맹의 공고화 필요성 등임을 알 수 있다. 가령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재평가에서도 나타난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가 지정학적인 위치, 현 국제 정세, 동남아의 현안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것을 재평가하게 되었다. 이에 다음의 장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증강과 위협 증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 국방예산삭감에 따른 동맹 약화 우려 등 순으로 다룰 것이다.

Ⅲ.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와 미국의 억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직면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계속 복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일부 미군 사령관들은 인사청문회나 의회청문회, 혹은 강연에서 THAAD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위협을 언급해 왔다. 가령 2008년 월터 샤프(Walter Sharp)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THAAD를 포함한 방어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밝힌 데 이어(US Congress 2008), 2011년 제임스 서먼(James Thurman) 사령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THAAD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US Congress 2011). 또한 2014년 6월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사령관은 국방연구원(KIDA) 조찬포럼의 강연에서 자신이 “사드의 전개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Park 2014). 이들 미군 사령관들이 한반도 내 THAAD 배치를 요구하면서 제시한 1차적인 배경은 증대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었다(Rinehart et al. 2015, 1; US DoD

2013, 19; Fitzpatrick 2011, 144-146).

실제로 북한은 1960년대 말부터 구소련으로부터 SS-N-2 스틱스(Styx) 함대함미사일, S-2 소프카(Spoka) 미사일, 로켓 FROG-3, 5, 7 등을 도입했고, 70년대 중반부터 소련제 Scud-B 미사일 및 발사대를 이집트로부터 도입하여 역설계로 개발해 시험발사에 성공했으며, 그 뒤 사정거리 500km에 이르는 Scud-C 미사일을 생산하여 작전 배치했다. 80년대 초에는 유도장치 등 일부 부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1981년 이집트로부터 획득한 스커드-B 2기와 이동형 직립발사대 MAZ-543 TELs를 통해 1985년 복제형 스커드-B를 초도 생산하게 된다(권용수 2013, 2-3). 또한 1990년대에는 사거리 1,300km의 노동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후 작전 배치했다. 또한 북한은 1998년 8월 다단계 로켓 방식의 대포동 1호를 발사했고,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미사일, 노동 미사일, 그리고 Scud 미사일 등을 발사했다. 물론 이와 같은 미사일 증강의 위협은 북한의 핵능력 향상과 동시에 더욱 증강되는 것이었다.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기술 개발 투자와 발사 실험을 통해 핵무장 탄도미사일 개발 수준을 향상시켜 <표 1>와 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북한의 주요 탄도미사일 현황

구분	종류	플랫폼	사거리(km)	보유량(기)
SRBM	KN-02	TEL	170	100
	스커드 B		300	600
	스커드 C		500	
	스커드 ER		700	
MRBM	노동		1,000~1,300	175-200
IRBM	무수단		3,000~4,000	50-75
ICBM	대포동 1호	지상 고정	2,500	
	대포동 2호		6,700	
	대포동 3호		10,000	
	KN-08	TEL	8,000	
총보유량				약 1,000기

출처: 권용수,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술 분석 및 평가,” 『국방연구』 56, 1 (2013); 국방부, 『국방백서 2014』 (서울: 국방부, 2014); Ian Reinehart et al.,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3) 등

더욱이 지난 2014년 3월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을 고각으로 높여 발사해 650km까지 사거리를 줄이는 실험은 한국과 미국을 긴장케 했다. 전문가들은 노동 미사일이 마하 7의 속도로 급강하할 경우 사정권에서 5초 안에 요격을 해야 하는 PAC-3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예상한다(홍규덕 2015, 123). 또한 북한은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을 개선하고, 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진행했다고 공개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역량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실험을 실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북한은 사거리가 3,000~4,000km에 이르는 무수단 미사일을 포함하여 다양한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음은 확실하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 내 주요 시설이나 일본 후방 기지들, 오키나와 및 괌 등을 대상으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에 미군이 한국 내 자군 시설과 자국민 보호를 위해 THAAD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홍규덕 2015, 123).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의거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국방부를 비롯해, 국무부, 국토안전부, 각 정보기관 등 범정부차원에서 집대성된 것으로, 미 국방부가 2010년 2월 발표한 <탄도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이하 BMDR 보고서)는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중·단거리미사일(IRBM, MRBM, SRBM)이라고 강조했다(Gates 2010, iii, 29).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의 ICBM 기술이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만큼의 수준은 되지 못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실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실제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 등의 중/단거리 미사일임을 제시했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아태 동맹국들과 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구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美 국방부 지침인 BMDR 보고서는 동아시아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단계적 확정 접근”(Phased Adaptive Approach, PAA)에 따를 것임을 발표했다(Gates, 12-13, 23). 또한 美 국방부가 2013년 12월에 발표한 정책 지침 문건인 <Joint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Vision 2020>은 미군이 항공 및 미사일방어 역량을 동맹국들과 통합하고, 동맹국들의 분담금(contributions)을 투입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Dempsey 2014). 이 지침들 역시 미국의 탄도미사일 방어 정책이란 소위 불량국가들, 즉, 북한, 이란 등이 미 본토를 비롯해 미국의 동맹국들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 전력에 대해 제한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는 데 대한 방어임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양자, 삼자, 다자적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반도 내 THAAD 배치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통합적 탄도미사일방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Ⅳ. 중국의 군사력(해군력) 증강과 공해군 전투 개념

냉전기간 동안 미국의 국가전략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지역 패권이 등장하지 않도록 봉쇄하는 것이었다. 반세기 동안 동아시아에서는 힘의 균형에 변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역외균형자로서 동아시아의 대륙세력인 소련과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냉전 종식과 더불어 중국의 부상은 그러한 전략에 변화를 가져왔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이상 초고속 성장을 이뤄냈던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적 기반 위에 1,458억 달러로 추산되는 막대한 국방비를 투자하고 있고,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투자하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IISS 2016, 19, 222). 이는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도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역사적 연원이 있는 것으로, 우선 정치적으로 중국은 대만의 독립과 관련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과거 소위 “굴욕의 세기”가 해상으로부터 접근해온 영국과의 아편전쟁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후의 열강의 침탈 역시 해상으로의 접근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중국몽(夢)”을 제시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은 해양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연안방어전략에서 근해방어(近海防禦) 전략으로, 또 장기적으로는 원해작전이 가능한 대양해군전략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15년 국방백서(中国的军事战略)는 ‘근해방어’와 ‘원해호위’(远海护卫)라는 전략개념을 제시하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5).³⁾ 이와 같은 중국의 해군력 팽창 시도는 말라카 해협을 거쳐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따라 한반도와 일본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를 위협함은 물론 미국의 태평양 제해권에 도전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적대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항모공격용 미사일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대함탄도미사일(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은 동풍(東風) 시리즈로(Erickson 2010, 2-4), 단거리 탄도미사일(Short-Range Ballistic Missile: SRBM), IRBM/MRBM, ICBM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구형 ICBM으로는 사거리 13,000km인 DF-5A 2기, 그리고 신형 ICBM으로는 사거리 8,000km의 DF-31 12기와 사거리 12,000km의 DF-31A 24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의 핵전력은 미·일의 미사일방어망에 의해 무력화될 경우 전략적 균형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을 뚫기 위해 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 미사일(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 MIRV)인 사거리 12,000km의 DF-31B와 사거리 14,000km의 DF-41을 개발하고

3) 출처: <http://www.scio.gov.cn/zfbps/gfbps/Document/1435341/1435341.htm>(검색일: 2016. 8.10.).

있다. 또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책으로 기동핵탄두 탑재미사일(Maneuverable Reentry Vehicle: MaRV), MIRV, 위장미사일(decoy), 레이더 탐지 방해용 금속편(chaff), 그리고 반위성무기(Anti-Satellite: ASAT) 등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 외에 이지스급으로 분류되는 뤼양-Ⅱ급 구축함은 스텔스 기능, 위상배열레이더, HQ(홍치: 红旗)-9 함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중국의 함정제조 기술력을 보여준다. 뤼양-Ⅲ 구축함은 보다 성능이 향상된 레이더와 다목적 수직발사대가 장착되어 함대공, 함대지, 대잠미사일을 구비하고 있다. 호위함 가운데 장카이-Ⅱ급 954A 호위함은 ‘미니 이지스’라고 불리며 해군의 방공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Chase et al. 2014, 88-90). 중국해군은 잠수함 전력을 현대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공격용 핵잠수함(SSN)과 공격용 잠수함(SS)을 보유하고 있다. 재래식 잠수함 전력으로는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킬로급 잠수함 외에 지금까지 송급 잠수함, 위안급 잠수함, 상급 잠수함을 도입하여 기존의 노후화된 잠수함을 대체하고 있다. 중국은 속도와 기동성을 개선하고 소음을 감소시킨 첨단 송급 SSN을 제작해 오고 있으며, 이들 잠수함은 공중에서 발사되는 YJ(鷹擊, 잉지)-12을 개량한 YJ-18 대함크루즈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Perlez 2015).

그 외에도 중국해군은 현재 옛 소련 시절 70% 정도 건조된 항모를 도입하여 완성한 ‘랴오닝(遼寧)’ 항공모함 1척을 보유하고 있고 자체기술로 추가 항공모함 2척을 건조 중에 있다. 이에 중국은 다롄과 상하이 인근 조선소에서 10만 톤 규모에 핵추진 방식을 갖춘 항모를 건조하고 있다. 2030년까지 4척의 항모단을 구성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US DoD 2012, 6).

중국이 ‘반개입작전’(counter intervention)이라 일컫는 반접근/지역거부 중 반접근은 적이 주로 장거리 공격 능력을 이용하여 아축 전력이 작전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에 반해 지역거부란 주로 중, 단거리 공격능력을 이용하여 적이 아축 전력이 작전지역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 어렵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는 합동작전 접근 개념 실현을 위한 30가지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지휘통제, 정보, 화력, 기동, 보호, 유지, 정보, 개입 영역에 각각 속하는 것으로 공해전투에서 구상되었던 아축 전력의 보호 및 대피, 반접근/지역거부 전력의 빠르고 효과적인 제압, 해양 수송로의 확보 및 적에 대한 접근 거부 등 일련의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이다. 또한 문서는 이러한 능력의 발전과정에서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 및 기지 환경 조성을 위한 작업을 강조하고 있다(US DoD 2012, 36-37).

이러한 중국에 대해 미국은 초기에는 우호적인 관계로의 발전가능성을 열어놓고서 헤징(Hedging) 전략을 추구했다. 중국에 대해 완전한 봉쇄도, 전면적 협력도 아닌 전략을

추구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왔다. 미 국방부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초기에 이미 반접근/지역거부(A2/AD)로 규정되는 상황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2010년 〈4년 주기 국방 검토보고서(QDR)〉는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을 언급하고 대응을 제시했다. 미국은 우위에 있는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지 않으면, 중국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지역 패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강대국 정치의 역사적 패턴을 보았을 때, 중국이 능력만 갖추게 되면 지역 질서에 도전할 것이고,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과거 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 유럽에서 반복되어 왔던 일이고, 1823년에 미국이 먼로독트린을 통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선언했던 역사적 경험에서도 잘 드러난다(Ross 2013, 24).

공해군 전투 개념이란 A2/AD 환경 하에서도 “임무 달성을 위해 충분한 행동의 자유를 확보하고 작전 지역에 군사력을 투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US DoD 2012, 6). 각종 보고서들은 미국의 공간지배 능력을 거부하기 위한 비대칭적 방식의 군사적 도전 가운데 가장 현실적으로 떠오르는 전략이 연안전투(littoral warfare)를 기반으로 한 거부능력이라고 제시한다. 특히 반접근/거부전략을 달성할 수 있는 대표적 지역과 국가로 태평양에서의 중국을 이란과 함께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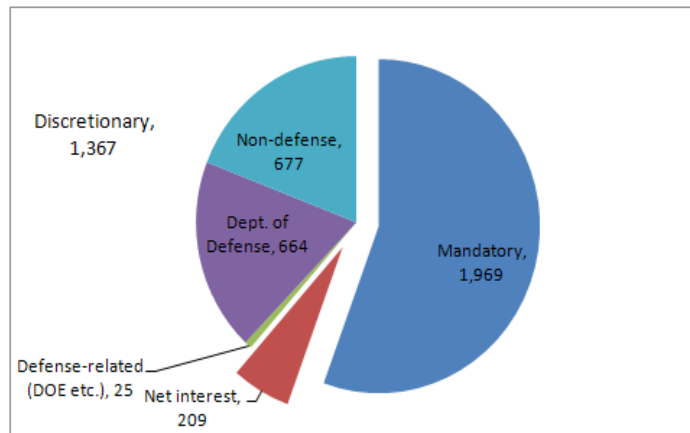
2010년 미국의 전략예산센터는 〈공해전투 개념〉(AirSea Battle: A Point-of-Departure Operational Concept)에서 총 25개의 핵심과제와 67개의 세부과제가 제시되어 있다(Tol et al. 2010, 81-94). 이중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태 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해·공군력의 생존성을 확보하고,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략으로부터 손실을 막기 위해 이지스(Aegis) 체계를 통한 구축·순양함 방호체계와 지상 방공전력을 연계한 미사일 방호체계(Missile Defense) 구성 및 운용 등의 적극적 방호조치와 각 기지 시설별 방호력 강화, 신속 복구 능력 확충, 동맹국 등의 대체기지 확보 등의 소극적 방호조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2012년 1월 17일 미 국방부는 〈합동 작전 접근 개념〉(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 문서를 발간했다. 문서는 현 시대 합참이 직면한 최대의 문제가 가상의 적들이 이와 같은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빠르게 신장시키고 있는 것이라 규정하고, ‘공해전투’가 문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의 기본구상을 제시한 것이라면, ‘합동 작전 접근 개념’은 이를 실제 작전에 적용할 수 있는 작전개념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합동 작전 접근 개념’ 문서는 이를 ‘다양한 상황에서 적의 군사적 저항에 직면하여 합동군이 작전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US DoD 2012).

V. 미국의 국방예산 삭감(sequestration)과 동맹 강화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에 2011년의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에 따른 국방비 감축을 반영한 신국방전략지침(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을 발표했다. 미국의 국방비는 9.11테러가 발생하던 해에 4,320억 달러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던 2008년에는 7,210억 달러에 이르렀다. 오바마 집권 이후 철군 정책에 따라 전쟁 수행에 드는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늘어난 국방비 총액은 줄어들지 않았다. 국내 경제가 어렵게 되면서, 재량적 지출(discretionary spending)⁴⁾에 해당되는 국방비 지출에 대한 요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11년 8월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 및 예산조정안을 논의하는데 활용되었던 재량적 지출 금액(2010년 기준)은 총 1조 3,670억 달러였고, 그 중 50.4%인 6,890억 달러가 국방 관련 예산이었다(도표 참조)(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0, 2).

〈도표〉 2010년도 미국 재정 분포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타협안을 만들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자동 삭감 조항에 의거하여 2013년부터 10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국방비 감축이 결정된 것이다. 이에 미 국방부는 제한된 예산을 핵심 역량에 배분하는 식으로 운용하고자 했다. 이를 〈국방전략지침〉은 작지만(smaller and leaner) 현대화된(modern), 기민하고(agile),

4) 매년 의회의 재정지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예산을 가리킨다.

준비되어 있는(ready) 군을 제시했고,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작지만(smaller), 준비되어 있고(ready), 강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capable), 원거리 지역에도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미군을 만들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는 국방비 자동 삭감으로 인해 동맹국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공약에 대한 신뢰 약화를 막고자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자동 삭감의 상황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 아태지역에 관심을 돌렸다(Clinton 2011; Manyin et al. 2012).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미국 해군 함대의 60%를 태평양에서 운영하겠다고 했고, 미국 공군을 5년에 걸쳐 태평양 지역 주둔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이후에 파네타(Leon Panetta) 국방장관은 2012년 상그릴라 대화에서 아시아와 대서양에 50 대 50으로 분산되어 있던 해군력을 향후 60 대 40으로 재조정하겠다고 언급했고(Panetta 2012), 그의 후임인 헤이글(Chuck Hagel) 장관은 2013년에 공군의 전진 배치기지의 60%를 아시아 지역으로 전개했음을 밝혔다(US DoD 2013; Sutter et al. 2013, 12).

국방부에서 발간한 2012년 국방전략지침(Defense Strategic Guidance)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강조했다. 재균형 전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동아시아 내 동맹국들과 동반자 국가들(partners)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강한 양자 관계를 지역 안보 협력 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Dale and Towell 2012).

미국은 이를 위해 아태지역 기존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주요국들과 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안보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미·일동맹을 재균형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동북아에서의 한·미·일동맹과 서태평양에서의 미·일·호 삼각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이는 2011년 클린턴 국무장관이 〈Foreign Policy〉에 기고한 글에서도 잘 드러난다(Clinton 2011, 56-63). 그녀는 미 정부가 이제는 태평양을 하나의 힘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고, 아태 지역이 미국에게 있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아시아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고, “지난 60년간 미국이 유럽에 관여했듯이 향후 60년간은 아시아에 집중 관여할 것”을 천명했다.

실제로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을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것은 거의 50여년 만에 이뤄진 일로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 간의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향후 안보,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등 전반에 있어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말레이시아의 총리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제법

에 따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필리핀과는 방위협력 확대 협정을 체결하고, 1992년 기지사용 협정 종료와 함께 철수했던 미군의 군사기지 사용과 기지 내 순환병력 배치를 약속 받았다.

결과적으로 오바마는 국방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복원하고, 미국의 안보 정책을 일관되게 운용하며, 동시에 동맹국들에게 미국이 여전히 아태지역과 동아시아의 안정에 대한 공약을 이행하려하고 있음을 재확인시키고자 했다.

VI. 결론

한반도 내 THAAD 배치와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가 1차적으로 생각하고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었다. 하지만 세계적 전략의 측면에서 오바마가 주목하고 대응하고자 했던 것은 중국의 부상과 동맹의 약화였다. 세계금융위기를 상대적으로 쉽게 극복한 중국은 연 9퍼센트에 달하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고, 그 경제력을 토대로 군사, 외교 분야에서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냉전 종식 이후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열어두었던 미국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일 수 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는 예산통제법에 따라 10년간 1조 달러 이상의 국방예산이 감축된 상황에서도 아태지역에 대한 “전략적 조정”(strategic balancing)으로 알려진 외교 및 국방 정책에 대한 새로운 성격을 규정해 제시했다(Clinton 2011; Manyin et al. 2012).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1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원을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미국 해군 함대의 60%를 태평양에서 운영하겠다고 했고, 미국 공군을 5년에 걸쳐 태평양 지역 주둔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국방부에서 발간한 2012년 국방전략지침(Defense Strategic Guidance)을 비롯한 주요 문건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강조했다(Panetta 2012). 그리고 동아시아 내 동맹국들과 동반자 국가들(partners)과의 관여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강한 양자 관계를 지역 안보 협력 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Dale and Towell 2012). 이에 기본적으로 한반도 내 THAAD 배치의 본류를 검토해 보면, 미국의 핵심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중국의 장거리 핵능력과 초보적인 북한 핵무기 시스템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것, 미국의 전략적·경제적 성장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파급될 만한 전쟁을 방지하는 것, 동맹국의 안보를 유지하는 것,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거나 적어도 봉쇄하는 것, 개방적이면서

자유로운 국제무역체제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아태지역과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화를 도모하는 것 등이다.

결국 한국 내 THAAD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로서도 기능함과 동시에 아시아중시정책 내지 재균형 전략이 갖는 다음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한다. 우선, 그것은 외교, 경제, 군사 등 이슈를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전략에 의거한 것으로 중국의 부상과 군사력 증강에 대해 아태지역에서의 군사력 강화를 지향하는 안보전략의 성격이 강하다. 미국은 한반도 내 THAAD 배치를 통해 아태지역 기존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주요국들과 동반자 관계를 추진해 안보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미·일동맹을 재균형 전략의 핵심으로 보고, 동북아에서의 한·미·일동맹과 서태평양에서의 미·일·호 삼각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Berteau and Green 2012, 26). 미·일동맹은 이미 2015년 4월 27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 기여 정책으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는 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미·일·호 삼각안보협력체제는 지난 2012년 9월에 구축되어 삼국 간 주기적인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역내 동맹국/안보파트너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재확인(reassure)이다. 그 필요성은 중국의 적극적 대외정책에 대해 역내 국가들이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보다 높아졌다. 미국이 재정위기로 대규모 예산감축이 이뤄진 후 동맹국들은 안보 공약 이행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따라서 미국 고위정책결정자들은 재균형 정책이 미국의 이익 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요청과도 연관됨을 강조하면서 반복적으로 방위공약 준수의지를 확인/확대했다(Donilon 2012). 가령 오바마는 2011년 캔버라에서 미국의 국방비 삭감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공언했고(Obama 2011), 파네타 국방장관은 2011년 미국의 국방비 예산 감축과 관련해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의 중국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는 동맹국들에게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 계속 남을” 것이고 “군사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확인했다(Ross 2012, 72).

끝으로 본래의 THAAD 배치의 표면적 명분으로 돌아오면, 미국은 동맹국과 지역 전체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위협, 즉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그 조치 역시 미국에게 있어서는 “허브 앤 스포크”의 지역 안보 구조를 유지하면서 다음의 목적을 추구한 것이다. 첫째, 태평양 전역에 전진 배치된 단일의 주둔군 형성, 둘째, 한국, 일본, 필리핀, 태국, 호주 등과의 쌍무적 동맹관계 유지와 동맹은 아니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인도 등과 맺고 있는 “안보 우호” 관계 강화. 셋째, 다자 안보 협정, 다자 훈련, 정보 공유, 전문 군사 교육 등에의 참여와 동맹국이나 전략적 동반자 국가가

아닌 국가들과의 쌍무적 안보 및 군사 교환을 통한 안보 관여 비용 절감 등이 그 목적들이다. 결국 미국의 한반도 내 THAAD 배치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개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4. 미사일 방어 전략.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권용수. 2013. 북한 탄도미사일 기술 어디까지 왔나. 북한 494, 66-74.
- 권용수. 2013.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술 분석 및 평가. 국방연구 56(1), 1-27.
- 홍규덕. 2015. 사드(THAAD) 배치에 관한 주요쟁점과 미사일방어(MD) 전략. 신아세아 22(4), 110-134.
- Ambrose, Stephen E., 1993. Rise to Globalism: American Foreign Policy since 1938, 7th ed. Penguin.
- Armitage, Richard and Nye, Joseph. 2012.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CSIS.
- Bertau, David J. and J. Green, Michael. 2012. U.S. Force Posture Strategy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 Independent Assessment. CSIS.
- Burns, Richard D., 2010. The Missile Defense System of George W. Bush: A Critical Assessment. Praeger.
- Burns, Richard Dean and Joseph M. Siracusa. 2013. A Global History of the Nuclear Arms Race: Weapons, Strategy, and Politics. Praeger.
- Chase, Michael S. et al., 2015. China's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 Assessing the Weakness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PLA). RAND.
- Clinton, Hillary. 2011. America's Pacific Century. Foreign Policy (Nov. 2011). <http://foreignpolicy.com/2011/10/11/americas-pacific-century/> (검색일: 2016. 8. 10)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0. Direct Spending and Defense Program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2010. Discretionary Defense Spending. Presentation to the National Commission on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 Congressional Budget Office.
- Dale, Catherine and Pat Towell. 2012. Assessing the January 2012 Defense Strategic Guidance(DSG), <http://www.state.gov/p/eap/rls/rm/2011/03/159450.htm> (검색일: 2016. 8. 10)

- Dempsey, Martin. 2014. Joint 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Vision 2020. U.S. Department of Defense.
- Donilon, Thomas. 2012. President Obama's Asia Policy and Upcoming Trip to the Region. CSIS Conference (15 November, 2012) http://csis.org/files/attachments/121511_Donilon_Statesmens_Forum_TS.pdf. (검색일: 2016. 8. 10)
- Erickson, Andrew S., 2010. Ballistic Trajectory-China Develops New Anti-Ship Missile. Jane's Intelligence Review.
- Fisher Jr., Richard D. Dalian Official Says China Planning Four Aircraft Carriers. IHS Jane's 360.
- Fitzpatrick, Mark (ed.). 2011. North Korean Security Challenges: A Net Assessment.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 Friedberg, Aaron L., 2011. A Contest for Supremacy: China, America, and the Struggle for Mastery in Asia. W.W. Norton and Company.
- Gates, Robert. 2010.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U.S. Department of Defense.
- Hildreth, Steven A. 2007. Ballistic Missile Defense: Historical Overview. CRS.
- International Institution for Strategic studies. 2016. The Military Balance 2016. Routledge.
- Kwon, Yong Soo. 2014.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Northeast Asia. KAS and RINSA.
- Manyin, Mark E. et al. 2012. Pivot to the Pacific? The Obama's "Rebalancing" Toward Asia. CRS.
- Perlez, Jane, 2015. Beijing, with an Eye on the South China Sea, Adds Patrol Ships. International New York Times (April 10).
- Burns, Richard Dean. 2010. The Missile Defense Systems of George W. Bush: A Critical Assessment. Praeger.
- Obama, Barack. 2010. Remarks by President Obama to the Australian Parliament.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1/11/17/remarks-president-obama-australian-parliament> (검색일: 2016. 8. 10)
- Panetta, Leon. 2012.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www.defense.gov/news/Defense_Strategic_Guidance.pdf (검색일: 2016. 8. 10.).

- Park, Ju-min. 2014. U.S. troop leader in South Korea wants deployment of new missile defense against North. Reuters. <http://www.reuters.com/article/us-usa-south-korea-missile-idUSKBN0EE09120140603> (검색일: 2016. 8. 10.)
- Rineart, Ian E. et al. 2015.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CRS.
- Ross, Robert S. 2012. The Problem with the Pivot: Obama's New Asia policy is Unnecessary and Counterproductive. *Foreign Affairs* 91(6), 70-82.
- Ross, Robert S. 2013. US Grand Strategy, the Rise of China, and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r East Asia. *Strategic Studies Quarterly* 7(2), 20-40.
- Sutter, Robert G. et al. 2013. Balancing Acts: The U.S. Rebalance and Asia-Pacific Stability.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The White House. 2015.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 White House.
- Tol, Jan Van. 2010. Airsea Battle: A Point-of-Departure Operational Conflict.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0. Ballistic Missile Defense Review Report. U.S. Department of Defense.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Defense Strategy Guidance. U. S. Department of Defense.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2. 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JOAC), ver. 1.0. U.S. Department of Defense.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3.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2. U.S. Department of Defense.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4.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U.S. Department of Defense.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6. U.S. Following Through on Pacific Rebalance, Hagel Says.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 US Congress, Senate. 2008. Nominations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110th Congress, 2nd session. <http://www.gpo.gov/fdsys/pkg/CHRG-110shrg46092/html/CHRG-110shrg46092.htm>. (검색일: 2016. 8. 10.)

- US Congress, Senate. 2011. Nominations before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112th Congress, 1st session. <http://www.gpo.gov/fdsys/pkg/CHRG-112shrg74537/html/CHRG-112shrg74537.htm>. (검색일: 2016. 8. 10.)
- Wit, Joel S. and Ahn, Sun Young. 2015. North Korea's Nuclear Futures: Technology and Strategy. US-Korea Institute at SAIS.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5. 『中國的軍事戰略』.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http://www.scio.gov.cn/zfbps/gfbps/Document/1435341/1435341.htm> (검색일: 2016. 8. 10)

● 투고일: 2016. 8. 13. ● 심사일: 2016. 8. 15. ● 게재확정일: 2016. 8. 24.

U.S. strategy and Deployment of THAAD in South Korea

Mo, Juneyoung
(Korea University)

THAAD is designed to shoot down ballistic missiles at higher altitudes(at altitudes of 40 to 150km) in their terminal stages using a hit-to-kill methods. South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decision on June 7 to place the THAAD system in the South to counter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South Korean Government and United States explained that the threat of North Korean aggression led the deployment of THAAD. However,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ersistently said that it has no intention to join the US MD system and wants to build up its own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KAMD) system to deal with evolving North Korean missile and nuclear threats. Thus, good, definite cause needs to convince the deployment of THAAD.

This article tries to grasp the US strategy and purpose to deploy THAAD system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policy. Thus this article examines the common contents of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and 〈National Security Strategy〉(2015), drew the common contents that US converted the attention to Asia-Pacific area, perceived the strengthening of North Korea's missile and China's military and the weakening of US leadership position as the most fatal threat in Asia-Pacific area. And this article presents the deployment of THAAD is extension of the same contents. In other words, this article shows that US expects that the deployment of THAAD weakens North Korea's missile threat, restrains the growth of China's military and reassures the security commitment to the Alliance.

〈Key words〉 THAAD, North Korea's missile (threat), A2/AD, airsea battle, rebalancing strategy